

시민 뜻 대변 숨가쁘게 달렸다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삼고 지난 7월 김경구 의장을 중심으로 출범한 8대 군산시의회가 지난 17일 제21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첫해 의정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6개월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사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기관으로서의 숨가쁘게 달려온 시의회를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제8대 군산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넘어 시민과 소통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의정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일자리, 복지 등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민생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군산시의회는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임시회의와 정례회 등 67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시정질문 3건, 5분 발언 34건,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건의문 8건과 조례안 60건, 동의안 24건, 승인안 1건, 예산안 3건, 기타 20건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제8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선 각종 현안에 대한 송곳질의를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총 256건을 지적, 시정조치요구 47건, 대책마련요구 152건, 건의 12건, 향후조치 25건, 종합검토 20건 및 민생위주의 예산을 심의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30개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또 의회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고자 어린이 모의의회를 열고 홈페이지를 개편해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했다.



의회 본회의장



명절 장보기 행사



행정복지위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현정방문



경제건설위 동백대교 현정방문



화이팅을 외치는 의원들.

서동완 부의장에게서 들어보는

올 한해 군산시의회 의정 성과

“ 제8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는 지난 7월, 30만 시민의 사랑과 기대 속에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하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 스스로의 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하는 의정활동,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의회 스스로의 자정과 의원 화합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 번의 정례회와 4번의 임시회를 통해 자정 노력을 약속하고 의원으로서 윤리식 고취와 실행을 다짐한바 있으며, 지역과 여야 당리당락을 떠나 의원들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둘째, 본격적인 민생행기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8대 개원 이후 짧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



의회 스스로 자정·의원 화합 노력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민 의견 제시
폭넓은 의정 교류활동도 벌여

뜻을 대변하고자 비회기중에도 현장을 찾아다니며 민생을 행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들어 진행된 첫 행감으로 여러차례 워크숍과 상임위원별 연찬회를 열고 행정자료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관내 곳곳에 프랭카드를 붙이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물었으며 언제든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대시민 소통문화 조성에 발 벗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과 따뜻한 나눔으로 소통하고 직접 사랑의 빵 만들기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셋째, 폭넓은 의정 교류활동을 벌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김천시의회의와 교류협력 관계 증진 노력과 중국의 연대시·청도시를 방문하여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의 도시 군산시를 홍보하며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증진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김경구 의장에게서 들어보는

내년도 의회 운영계획

“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의정목표 아래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생활정치로 성숙한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의식에 발맞추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시민의 희망을 담은 큰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 부당함을 질책하는 목소리,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목소리 하나하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할 말은 꼭 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식 발맞추어 맞춤형 의정활동 벌일 것
집행부 감시·견제 충실 시민 목소리 대변
지역 현안 직시 멀리 보는 혜안 갖도록 노력

의회는 중요한 기능중 하나가 바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정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총명한 눈을 가진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사회 곳곳에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찾을 수 있는 세밀한 눈을 갖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시장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는 적극 협조하는 균형 있는 시각도 유지할 것입니다. 군산시의 당면 현안을 직시하고 멀리 내다보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혜안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깨어있는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견제하고 올바른 의견을 내놓기 위해서는 공부하며, 시민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깨어있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시민들께서 편안히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갖겠습니다. /군산=김정훈 기자

